TSMC, 美 텍사스 투자 가시화… 삼성전자, 선제 양산 승부수

TSMC, 226억달러 규모 투자 추진
2나노 이하 첨단공정 생산시설 구축

삼성전자, 경쟁사 공급난에 수주 기회
올해 2나노 수주 과제 2배 증가 전망
테일러 공장 내년 상반기 양산 관측
테슬라 차세대 AI 반도체 생산 예정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 중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전경. /삼성전자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 TSMC의 미국 텍사스주 투자 구상이 구체화되고 있다. 삼성전자도 텍사스 테일러 공장의 양산을 앞둔 만큼 미국 내 첨단공정 수주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로이터통신은 TSMC 미국 법인이 텍사스주 브래조스 카운티에 226억달러 규모의 반도체 생산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주정부에 세제 지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TSMC는 1295만㎡ 이상의 부지에 2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공정을 적용한 생산시설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인공지능(AI)과 고성능컴퓨팅(HPC), 모바일 기기용 반도체를 생산할 계획이다.

지난 10월 웨이저자 TSMC 회장이 텍사스 현지 생산시설 구축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데 이어 구체적인 투자 규모와 적용 공정이 공개된 것이다. 세제 지원 신청서상 건설 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다. 다만 재산세 감면 여부에 따라 투자 지역이 달라질 수 있다. 기존 생산거점인 애리조나주도 후보지로 남아 있다.

TSMC는 지난 10일 이사회에서 409억 달러 규모의 투자 예산도 승인했다. 첨단 공정과 패키징 생산능력 확대를 비롯해 신규 공장 건설 및 연구개발(R&D)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오픈AI와 앤트로픽에 각각 최대 5억달러를 투자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매출 기준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점유율은 TSMC가 72.5%로 1위를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5.9%로 2위를 유지했지만 양사의 점유율 격차는 1분기 65.8%포인트에서 2분기 66.6%포인트로 확대됐다.

다만 AI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첨단 공정 공급 부족이 삼성전자에 신규 고객사 확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TSMC의 5·4나노와 3나노 공정 생산능력이 2분기 AI 서버용 반도체 수요 증가로 포화 상태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16일 공개한 분기보고서에서 경쟁사의 공급난과 가격 인상이 선단공정 시장에서 신규 진입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2나노 AI·HPC용 대형 고객사 과제 수주도 지속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2나노 공정 수주 과제 수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경영진 인사를 통해서도 파운드리 사업 강화에 힘을 실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일 발표한 2027년 정기 사장단 인사에서 전영현 DS부문장(부회장)이 메모리사업부장 겸직을 내려놓고 파운드리 등 미래사업 강화에 주력하도록 했다.

미국 내 첨단공정 생산거점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에 주요 장비를 반입하고 생산라인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오는 12월 중·하순 시험 가동을 거쳐 내년 상반기 양산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한다.

해당 공장에서는 테슬라의 차세대 AI 반도체인 'AI6'가 생산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5년 7월 테슬라와 165억 4400만달러 규모의 반도체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기간은 2033년 12월까지다. 테일러 2공장도 2나노 공정을 적용해 2030년 양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위탁생산부터 신약 개발까지" K-바이오, 中 전략적 동맹 확대

中 지방정부·현지 기업과 투자 협약
위탁생산부터 신약 개발까지 협업
공급망 리스크에 선별적 접근 필요

미·중 공급망 재편과 생물보안 규제 압박 속에서도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중국 지방정부 및 현지 기업과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의 대규모 생산·임상 인프라와 한국의 첨단 바이오 제조 및 품질 역량을 결합하는 '아시아형 분업 모델'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25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지난 24일 서울 협회 회관에서 중국 안후이성 톈창시 인민정부(시장 칸쉬루이)와 한·중 제약·바이오 산업의 투자·무역·기술 교류를 위한 전략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산업정책·투자환경 정보 교환 ▲공동 연구개발(R&D)·원료 공급·위탁생산(CMO) 연계 ▲정례 고위급 협의체 운영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톈창시는 의수협이 추천한 한국 기업에 투자 상담부터 현지 방문, 행정절차 대행까지 투자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다산제약·케비젠·파마라인 등 국내 3개 기업도 톈창시 상무국 및 현지 기업과 각각 협력 문서를 체결하며 실질적인 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

방한 일정을 총괄한 다산제약은 2023년 중국 허이약업과 설립한 합자법인 '안휘 허이다산 의약유한회사'를 거점으로 글로벌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을 가속화한다.

세포치료제 원료 분야에서도 대형 계약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 엑셀세라퓨틱스는 이날 중국 최대 히알루론산 기업 블루메이지와 향후 3년간 총 60억 원 규모의 T세포 및 NK세포 배지 구매의향서(LOI)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내년 상반기 본계약 체결을 추진 중이며, 최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실질 타결에 따른 투자 보호 강화 기조에 맞춰 블루메이지의 하이난 공장을 활용한 현지 생산도 검토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AI 거품·메모리 공급과잉 우려에 증시 급락

〉〉 1면 '젠슨 황… '서 계속

증시 급락 이유는 투자 수익성 등 인공지능(AI)을 둘러싼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내후년 메모리 반도체의 공급 과잉 가능성이 제기된 데다 미국 정부가 다시금 관세 카드를 꺼내 들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탓이다.

외신들은 인공지능(AI) 관련주의 급락에 대해 젠슨 황 CEO의 복귀에도 AI 투자 거품을 둘러싼 근본적인 우려는 해소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특히 마이크론에 대해 글로벌 투자 은행인 BNP파리바가 메모리 칩의 공급 과잉 위험을 경고하며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내리고 목표주가도 낮추면서 얼어붙은 투자심리에 찬물을 끼얹었다.

젠슨 황 CEO에 대한 미국 상원의 청문회와 당국의 회계 조사 등도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추가 관세 부과 움직임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도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신하은 기자 godhe@

